

Seoul Lifelong Education

POLICY

Review

Vol. 1 | 2026.03.

서울 평생학습 정책리뷰

데이터로 읽는 서울 평생교육의 현주소  
[평생학습 기회 인식 양극화와 정책 환류의 과제]

| 정책팀장 문이슬



분석 배경 .....	3
분석 결과 .....	3
시사점 .....	7
참고문헌 .....	10

## 분석 배경

평생학습은 단순히 개인의 지식 습득을 넘어,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기제이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평생학습 기회 충분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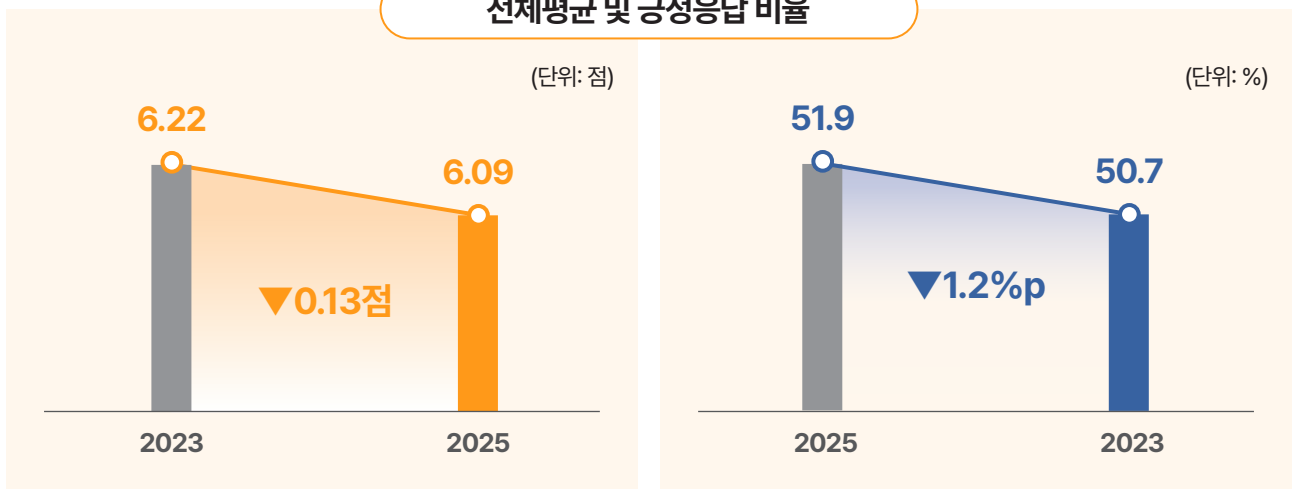
유네스코(UNESCO)는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포용적 평생학습 생태계’를 강조하며, 개개인의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에서 배움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역량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에 2025 서울서베이 및 지역사회조사 결과(2026. 2. 24. 공표)를 중심으로 서울 시민의 평생 학습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한다.

## 분석 결과

### 1. 평생학습 정책 체감 정체 국면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에 대한 전체 평점이 2023년 6.22점에서 2025년 6.09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긍정 응답 비율 또한 51.9%에서 50.7%로 낮아졌다. 이는 평생교육 인프라의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가 정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나타낸다.

전체평균 및 긍정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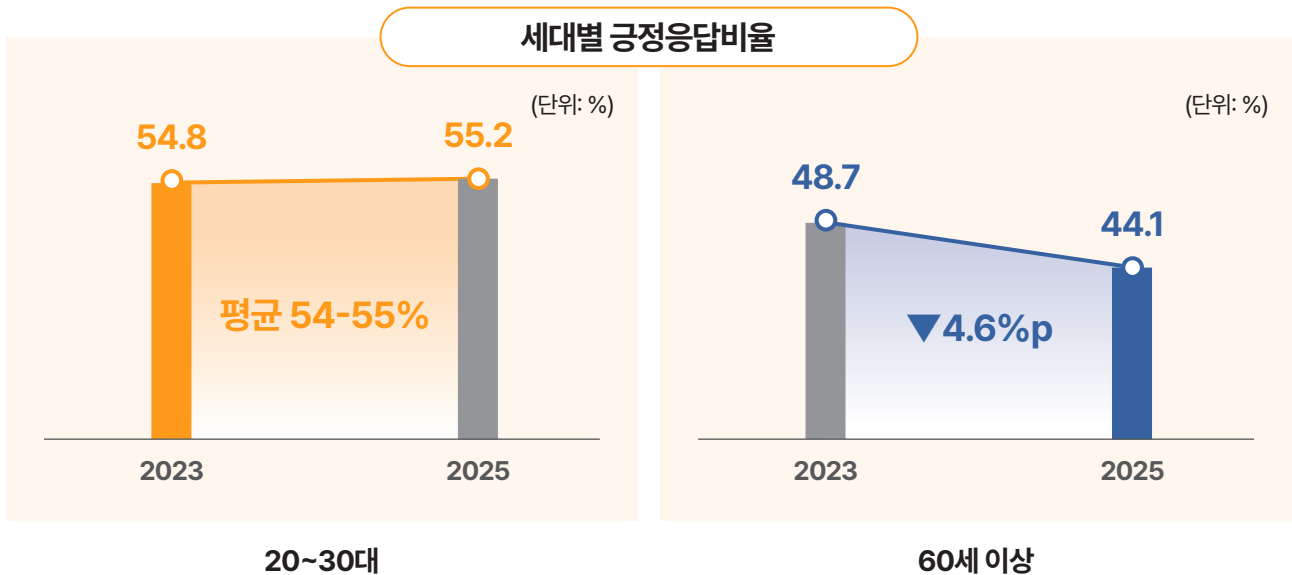
전체평균(10점 척도)

긍정응답비율



## 세대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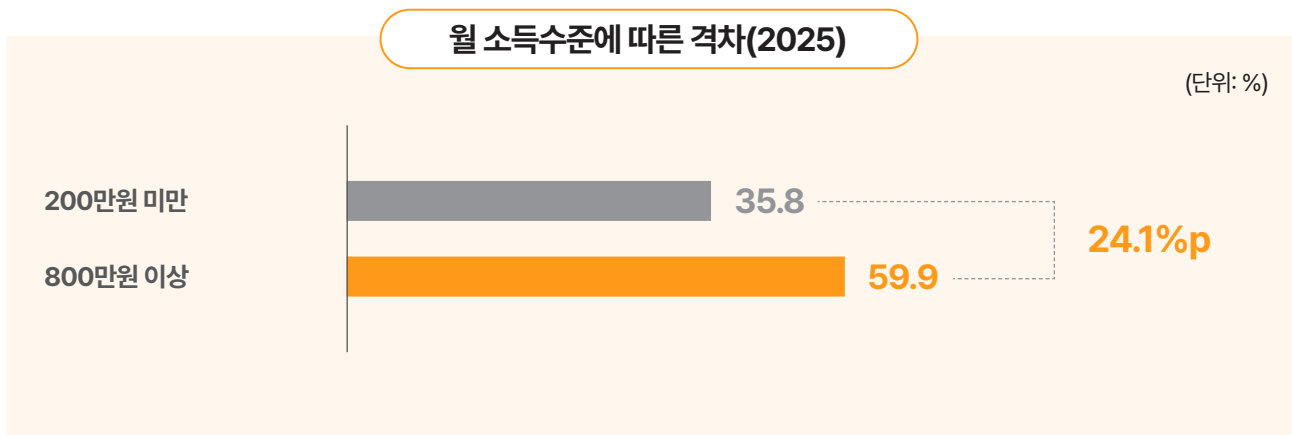
20~30대의 긍정인식은 54-55% 수준을 유지되는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48.7%에서 44.1%로 하락하여 세대 간 학습 기회 인식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 20~30대 수치는 사례수 기준 가중평균을 적용하였음

## 소득 수준별 격차

2025년의 경우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집단(35.8%)과 800만 원 이상(59.9%) 집단 간의 격차는 24.1%p로 나타나 소득 수준에 따른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여실히 드러낸다.



### 3. 지역별 불균형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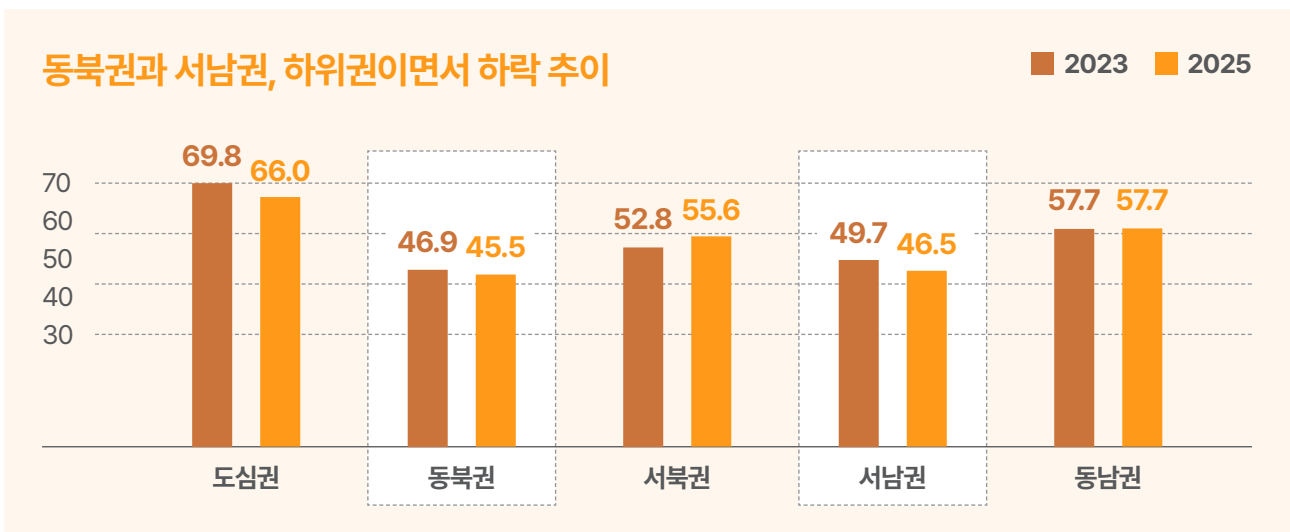
동북권(45.5%)과 서남권(46.5%)은 만족도 하위권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전주기 대비 추가 하락이 나타났다. 특히 도봉구의 긍정응답비율은 60.6%에서 22.9%로 급락하여 해당 지역의 정책적 보완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치구별 긍정응답비율 변화

(단위: %)

자치구	긍정응답비율		증감
	2023년	2025년	
서울 전체	51.9%	50.7%	▼1.2%p
용산구 <b>최고 유지</b>	78.2%	77.5%	▼0.7%p
노원구 <b>최대 상승</b>	26.5%	45.0%	▲18.5%p
성동구 <b>차순위 상승</b>	44.6%	56.9%	▲12.3%p
...			
광진구 <b>차순위 하락</b>	65.0%	48.3%	▼16.7%p
도봉구 <b>최대 하락</b>	60.6%	22.9%	▼37.7%p

(단위: %)



## 시사점

# 1. 공급자 중심 양적 확대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2025년 서울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서울서베이 결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충분도 평점과 긍정응답 비율이 동반 하락하였다. 숫자는 늘었지만 체감은 줄어든 이 역설은, 지금까지의 평생교육 정책이 시민의 실제 삶에 충분히 닿아 있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 개념의 확장이다. 유튜브 숏츠로 요리법을 익히고, 팟캐스트로 시사 지식을 쌓는 행위는 이미 평생학습의 영역임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를 ‘교육 참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민의 일상적 배움이 곧 평생학습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이 자신의 일상적 활동을 평생교육으로 ‘명명’하게 함으로써, 평생교육 기회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개선하는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 주제와 방법의 민감한 재편이다. 시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주제를 빠르게 발굴하되, 제공 방식 역시 시민의 실제 학습 행태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시민은 짧고 반복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익숙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성을 기대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강의실에 국한되지 않는 마이크로러닝·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설계를 확대 함으로써 참여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성과관리의 전환이다. 현행 지표(기관 수, 수강자 수)는 공급량을 측정할 뿐 시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담아내지 못한다. 역량 향상, 일상 활용도, 삶의 만족감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하고, 서울서베이를 정례적 환류 도구로 활용하여 성과관리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공급했는가’에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로 옮겨야 한다.

이 세 가지 전환이 맞물릴 때, 평생교육은 단순한 여가 프로그램을 넘어 시민 삶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 2. 교육기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적 평생학습’ 체계 강화

연령이 높고 학력·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교육 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 평생학습의 ‘계층적 고착화’ 위험이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별 특성에 맞춘 포용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인식 하락폭이 컸던 고령층을 위해서는 지식 전달을 넘어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집중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교육 생태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서비스나 취미·여가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기존 노인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생애전환의 관점에서 고령층의 주체성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현실을 고려하면, 기존 거점시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보 생활권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촘촘한 근거리 학습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2026년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과 함께 지역 종합사회복지관·평생학습관 등 10개 생활권 거점 기관으로 ‘7학년 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하는 실천적 시도로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저학력·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강화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비경제적 지원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층의 긍정 인식이 상승하는 동시에 저학력층의 인식이 하락하는 양방향 이동은, 현행 프로그램이 일정 수준의 학습 역량이나 정보 탐색 능력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강 신청 절차의 디지털 의존도, 교육 내용의 난이도, 홍보 채널의 편중 등 프로그램 기획 전반을 ‘학습 접근성’ 관점에서 점검하는 동시에, 시간 빈곤에 대응하는 유연한 학습 시간 설계, 주민센터·경로당 등 일상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의 확대 등 비경제적 지원을 함께 마련하여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고령층을 위한 생활권 기반의 근거리 학습 거점 확대와 저학력·저소득층을 위한 학습 접근성 강화는, 대상은 다르지만 계층과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에 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의 원칙 위에 있다. 대상별 장벽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포용적 접근이 축적될 때, 서울의 평생교육은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연한 교육모델’ 도입

특정 자치구의 급락세와 권역별 만족도 불균형은 지역 내 인프라 접근성이나 프로그램에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만족도가 하위권이면서 하락세가 뚜렷한 동북권·서남권, 그리고 긍정응답률이 급락한 도봉구와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해당 지역의 인프라 노후도와 접근성을 전면 재점검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고정된 공간 중심 공급 방식을 탈피하여, 수요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유연한 교육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역세권 유희공간, 상권 내 커뮤니티 공간 등 시민의 일상 동선 안에 학습 거점을 조성하고, 강의·체험·상담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센터·경로당·복지관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학습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접근이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2026년 4월 도봉구 역세권 유희공간에 시범 운영하는 ‘서울 평생학습 팝업스쿨’은 이러한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러한 정밀한 진단과 지역 자원을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은 평생학습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서울시 전체 평생학습 만족도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도가 서울 전역의 평생학습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자치구 간 협력과 우수 모델 공유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시사점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다. 평생교육 정책의 실효성은 공급의 양이 아니라, 시민이 그 가치를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관 수와 학습자 수가 늘어나는 동안 시민의 기회 인식이 오히려 하락한 현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일수록 체감도가 낮아지는 현실, 특정 지역의 만족도가 급락하는 현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제로 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개념을 시민의 일상으로 넓히고,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더 촘촘하게 다가가며, 성과를 삶의 변화로 측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이 쌓일 때, 서울의 평생교육은 공급 중심의 관성을 넘어 시민 누구나 배움의 가치를 체감하는 학습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다.

\* 본고는 서울서베이·지역사회조사 결과 및 원자료(Raw Data)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자료입니다.

##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4). 2023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2024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6). 2025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2023). 2023 서울서베이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25). 2025 서울서베이 결과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23). 2023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25). 2025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울 평생학습 정책리뷰

Seoul Lifelong Education

# POLICY Review

Vol. 1  
2026. 03.

발행처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14층  
발행인 한용진  
기획/집필 문이슬(정책팀)  
편집 고혜빈(정책팀)  
전화 02-719-6903  
발행일 2026년 3월  
디자인 명문인쇄공사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하며, 인용 및 활용 시에는 출처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6.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